

# “진보·보수 아우르는 대안정치·생활정치 시대 열 것”

##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대회

안철수 의원이 창당을 주도하는 신당 '국민의당'은 1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어 창당 준비위원회를 정식 발족했다.

국민의당은 내달 2일 중앙당 창당을 목표로 시·도당 창당작업, 당원모집 및 외부인사 영입 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날 발기인대회에선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와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안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창당 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발기인대회에서 '미래를 향한 담대한 변화'를 기치로 내세워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국민 중심의 정치'를 선언했다.

국민의당은 창당 발기취지문에서 "비생산적 이념대립, 지역갈등, 국민분열의 시대를 청산하고 성찰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는 새로운 대안정치, 민생정치, 생활정치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를 위해 이념적으로 유연할 것"이라며 "의제에 따라 진보와 보수의 양 날개를 펴면서 합리적 개혁을 정치의 중심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발기인대회 직후 한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공천 문제와 관련, "오늘 창준위가 정식으로 가동됐지만 총선이 임박한 상황이기에 총선과 연관된 전반 업무를 창당 이후로 미룰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천물에 대해서 "제 생각은 있지만,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 1978명 참여...현역의원 7명

### 한상진-윤여준 공동 위원장

### 내달 2일 중앙당 창당 박차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아권연대 불가론을 밝힌 것에 대해서 "옳은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창당 발기인으로는 모두 1978명이 참여했으며 현역 의원 중에서는 안 의원과 김한길 의원을 비롯해 김동철·문병호·유성엽·임내현·황주홍 의원 등 7명이 참여했다.

공직자 출신 중에서는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회장, 교육계에서는 김현수 전 대구 대명중학교 교장 등이, 시민사회에서는 여창호 전 부산 YMCA 이사장 등이, 문화계에서는 윤만식 광주전남 민예총 대표, 체육계에서는 이성룡 태권도 국제심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김대중 대통령 주치의 출신인 강대인 씨,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유정·김창수 전 의원 등도 발기인으로 포함됐다.

일반 시민 중에서는 중장비 개인사업자인 정한영 씨, 송민철 대한항공 기장,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사인 이진경 씨, 분뇨처리 비료공장을 운영하는 정영환 씨, 필리핀 다문화여성인 한예슬 씨, 임윤훈 삼거리리뷰 대표, 전 해태타이거즈 야구선수인 최해수 씨, 부산신항만 하역운송 노동자인 조창한 씨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환·최재현·권은희 의원 등 아직 공식적으로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현역의원 3명은 발기인에 포함되지 않았고, 신당 참여



안철수 의원이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신당 '국민의당'(가칭)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김한길 의원,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김영환 의원 등과 함께 손을 맞잡아 들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부가 주목되는 안 의원의 옛 측근 중 김성식·박성숙 전 의원,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은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동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여준 전 장관도 병원에 입원해 이날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발기인대회를 마친 안 의원은 11일에는 '내일포럼 전남'이 주최하는 초청 강연회에 참석차 광주와 순천을 방문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호남 인물 부재가 강한 정통야당 흔들어”

### 광주 찾은 박영선 前 원내대표 “잔류냐 탈당이나,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잔류냐 탈당이나’ 갈림길에 서 있는 더불어민주당(더민주)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10일 “경계가 문제다. 새 경계를 위한 정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를 방문한 박 전 원내대표는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경제 문제 해결과 중산층 복원을 원하는 보통 사람들이 ‘양 극단 당체제는 싫다’,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열망을 갖고 있는 흐름에 몸을 던져 새로운 정치개혁에 헌신할 것이냐, 아니면 강한 정통야당이 필요하다는 또다른 흐름에 따라 (내부에서)강한 야당을 지켜내야 하는 대통합의 밑바닥이 될 것이냐의 지점에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두 가지 가지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지 시도하는 심정”이라며 “국민들이 더 바라는 열망이 무엇인지, 신중하고 지혜롭게 문제를 풀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 지역구 주민들의 민심을 묻는 질문에는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현재 40대 후반은 새로운 흐름을 지지하고 있고, 20~30대에서는 강한 전통 야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면서 “이러한 점 때문



지, 저의 지역구 유권자들께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조언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민주에 안철수 의원 등의 탈당 이후 일부 의원들은 상당히 변화하고 있는데, 지도부는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 의원이 추진중인 국민당은 아직까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확고하게 정립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더민주 문재인 대표의 선대위원장

제안과 안 의원의 국민의당 대표 영입설에 대해서는 “(제가)말씀을 드리기에는 두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면서 직답을 피했다. 또한, ‘탈당과 잔류’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호남 민심이 안철수 신당으로 기울어진 원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호남의 인물을 키워야 한다고 본다. 호남의 인물 부재가 강한 정통야당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면서 “호남 민심은 정권교체에 대한 갈망이 큰 만큼, 호남 민심은 사실상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당을 지지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한편, 당내 총도과 모임인 ‘통합행동’의 멤버이자 수도권 3선 의원으로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박 전 원내대표가 움직일 경우 ‘안철수 신당’(국민의당) 창당 추진으로 촉발된 야권의 재편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박 전 원내대표의 거취에 야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선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안철수 신당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리브콜’을 받고 있다. /최경일기자 cki@kwangju.co.kr

## 더민주 최재성 “탈당파들 호남팔이” 비판에

## 국민의당 문병호 “호남민심 기웃거리지 말라”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가칭 '국민의당' 창당 작업에 참여 중인 문병호 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총무본부장의 '호남팔이'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최재성 본부장은 호남팔이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면서 “더 이상 호남의 진정성과 개혁성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명에 민주당이라는 단어를 쓰는 등의 행태로 호남 민심에 기웃거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최 본부장은 지난 8일 당

실비위원회 오찬에서 탈당파 의원들을 겨냥, “당에서 자기주장과 이해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뛰쳐나가서 호남의 특세를 가지고 '호남팔이' 하는 게 아닌가”라며 “호남의 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 의원 측 신당에 대해서도 “탈당 의원을 받아서 교섭단체를 만들면서 새정치·혁신을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문 의원은 더민주 혁신위원을 지낸 조국 서울대 교수를 향해서도 “혁신위가 제안하고 '더불어당'이 채택한 5본부장

체제가 잘 작동하고 있다. 최재성 사무총장과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본부장 체제가 개파 패권 해소와 대표권한 견제 기능을 하고 있다”라며 “별써 다 있잖나? 쓴 소리 한번 하시라”고 고집했다.

문 의원은 “최 본부장의 발언은 호남 민심을 심히 왜곡하고 폄훼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최재성 사무총장 체제만 봐도 조 교수가 주도한 혁신안이 탁상공론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말로만 혁신안을 하면 뭐하나”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NT 하나투어**

**제 15회 하나투어 결혼 박람회**  
2016. 1. 23(토) ~ 24(일) 11:00 ~ 19:00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동구 불로동 96-7)  
문의전화 062) 228-1199

최대 140만원 할인 혜택  
예약 시, SM면세점 3만원권 선불카드 제공

**프리미엄 로드샵 바로가기**

**하나허니문 결혼박람회 추천 상품**

<p><b>클래식</b> ABW100_KE/OZ/LJ_R 푸켓 6일</p> <p>더 나가 오션뷰 풀빌라(2+2)</p> <p>총상품가 <b>1,749,000원~</b></p> <p>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p> <p>출발일 : 2016년 1월 ~ 토/일/월요일</p> <p>특 전 : 커플 80만원 할인/데일리 감쪽선물 제공/로맨틱 스낵촬영&amp;오토투어 포함/스파마사지 3회</p>	<p><b>클래식</b> AXW100_SQ/KE/QR_H 몰디브 6일</p> <p>하이드러웨이 디럭스 워터빌라 위드 풀</p> <p>총상품가 <b>3,763,600원~</b></p> <p>현지지불 ▶ 몰디브 공항택스(1인 \$25), 현지선택경비</p> <p>출발일 : 2016년 1월 ~ 토/일/월요일</p> <p>특 전 : 30분 커플마사지 1회 무료 제공 30분 스낵촬영 무료 제공(50매 - CD로 증정)</p>
--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함료, 관광교통비, 관광교통비,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행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 여하에 따라 여행상품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의 사전 통보를 받으십시오. ■관광사설사 등록번호 제269004-1993-6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8(8)호 ■최소 출발인원 10명 / 기준/ 호실 2금호호텔 이상 2인 1실/고동면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청탁/불편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원 보증보험 22억 (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십시오.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1 ●여행 유의 2 ●여행 자제 3 ●참수 권고 4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